존 오웬 『죄 죽이기』(박문재 옮김, CH북스 세계기독교고전 64)

11장 죄를 죽이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들 (3)

『죄 죽이기』 11장 「죄를 죽이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들(3)」, 인쇄 144~157쪽

🧭 흐름 한눈에

오웬은 앞 장에 이어 죄를 죽이는 구체적인 지침 다섯 가지(3~7번)를 내놓는다. 먼저 죄책을 피하지 말고 양심 앞에 세우라고 한다. 율법으로 비추고, 복음으로 비추고, 내가 받은 구체적인 은혜들로 비추어 양심이 무너질 때까지 하라는 것이다.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깨달았다면, 다음은 그 죄에서 건져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일이다. 이어서 오웬은 실제 싸움의 기술로 넘어간다. 내 타고난 기질에 뿌리내린 죄는 따로 다루어야 하고, 죄가 올라오는 계기와 길목을 미리 막아야 하며, 죄의 첫 움직임을 온 힘을 다해 끊어야 한다. 전체 흐름은 '죄의 무게를 느끼는 마음'에서 출발해 '구체적으로 길을 막는 손'으로 나아간다.

📜 절별 정리

📜 1. 세 번째 지침의 큰 틀: 죄책으로 양심에 부담을 주라

오웬은 나를 괴롭히는 죄 때문에 생긴 죄책을 계속 떠올려 양심에 짐을 지우라고 한다. 여기서 죄책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죄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말한다. 이 짐은 “죄에는 원래 죄책이 따른다”는 일반적인 생각만으로 지는 것이 아니다. 그 죄가 실제로 터져 나오고 꿈틀댔던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져야 한다. 방법은 하나님이 쓰시는 순서를 따른다. 먼저 일반적인 것(율법, 복음)에서 시작하고, 그다음 구체적인 것(내가 받은 인내와 회복과 섭리의 은혜)으로 내려간다. 이 지침이 왜 먼저 와야 하는지는 이 지침의 끝(5절)에서 밝혀진다. 양심이 죄책을 달랠 다른 수단을 쥐고 있는 한, 영혼은 죄를 죽이는 일에 필사적으로 달려들지 않기 때문이다.

2. 원리만 묵상하지 말고 실제 넘어진 일을 떠올려라
3. 순서: 일반(율법·복음) → 구체(받은 은혜)
4.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따르는 순서다

📜 2. 율법에 비추어 양심을 세우라: "나는 율법에서 해방됐다"는 핑계에 답함

첫 단계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양심에 들이대는 것이다. 율법은 거룩하고, 영적이고, 엄격하다. 겉 행동만이 아니라 속마음까지 요구하고, 예외 없이 요구한다. 그런 율법 앞에 내가 설 수 있는지, 내 죄가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이 얼마나 의로운지를 보라는 것이다.

그러면 양심이 핑계를 댄다. “나는 율법에서 해방되었으니 율법의 정죄는 나와 상관없다. 그러니 율법대로 못 살아도 그렇게 괴로워할 이유가 없다.” 오웬은 이 핑계에 세 가지로 답한다.

- 첫째, 죽이지 않은 정욕을 마음에 품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정죄에서 해방되었다는 증거를 양심이 찾을 수 없다. 죄를 몰래 용납하면서 “나는 자유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복음에서도 자기가 안전하다는 증거를 얻지 못한다.
- 둘째, 율법은 죄를 발견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 보좌 앞으로 끌고 가는 임무를 받았다. 용서를 구하면 놓여나지만, 구하지 않으면 율법은 떠나지 않는다.
- 셋째, 죄를 찾아내 추궁하고 영혼을 낮추는 것, 곧 죄를 비추는 거울이 되는 것이 율법의 본래 일이다. 율법으로 내 죄를 다루기를 거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마음의 완고함과 죄의 속임수를 따르는 것이다.

1. 율법의 거룩함·내면성 앞에 서 보라
2. “율법에서 해방됐다”는 말이 핑계가 될 수 있다
3. 죄를 용납하는 동안엔 자유의 증거가 없다
4. 율법은 죄인을 하나님 앞에 세운다
5. 율법은 죄를 비추는 거울이다

율법 앞에서 양심이 이르러야 할 지점: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 3. 율법을 내던진 사람들이 걸어간 길: 배교로 가는 문

오웬은 경고한다. 수많은 교인이 바로 이 문을 지나 배교자의 길로 갔다. 배교는 '한때 믿는다고 하던 사람이 신앙에서 떠나는 것'이다. 그들은 자기가 율법에서 해방되었다고 여기고, 더는 율법의 지도를 구하지 않으며, 율법이라는 자로 자기 죄를 재지 않았다. 처음에는 “율법은 나와 상관없다”는 생각에 머물렀다. 그러나 그 생각이 모르는 사이에 실제 판단과 사고를 장악했고, 결국 의지와 감정이 온갖 가증한 일에 문을 열게 되었다. 그래서 오웬은 율법이 주님의 이름으로 내 정욕에 대해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들으라고 권한다. 귀를 열면 양심은 놀라 떨며 엎드릴 것이다. 정말 죄를 죽이려는 뜻이 있다면 모든 핑계를 막고, 다윗처럼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고 고백할 때까지 양심을 율법 앞에 묶어 두어야 한다.

1. 율법을 무시하는 생각이 배교의 문이 된다
2. 생각 → 판단 → 의지·감정 순으로 무너진다
3. 율법이 내 죄에 하는 말을 끝까지 들으라
4. 다윗의 고백에 이를 때까지 핑계를 막아라

> **시편 51:3**
> 죄책을 철저히 시인한 성도의 모범
>
>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 4. 정욕을 복음 앞으로 가져가라: 내가 찌른 분을 바라보라

다음은 내 정욕을 복음 앞으로 가져가는 것이다. 다만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아버지의 사랑, 아들의 피, 성령의 은혜에 대한 내 보답이 이것인가?” “그리스도께서 씻어 주시려고 죽으셨고 성령께서 거처로 삼으신 마음을 내가 더럽혀 오지 않았나?” “구속의 날까지 인치신 성령을 날마다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합당한가?” 이렇게 날마다 양심을 추궁하라는 것이다. 그래도 양심이 조금도 무너지거나 녹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위험한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오웬은 경고한다. 복음은 죄를 가볍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의 배신을 더 무겁게 드러낸다.

1. 복음은 진통제가 아니라 거울로 먼저 쓴다
2. 죄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일이다
3. 성령이 사시는 마음을 더럽히는 일이다
4. 날마다 양심을 추궁하라
5. 그래도 안 녹는 양심은 위험 신호다

> **스가랴 12:10**
> “찌른 주님을 바라보고 애통하라”는 표현의 배경(오웬이 빌려 쓴 말)
>
>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 **히브리서 2:3**
> “이토록 큰 구원을 소홀히 하면 어찌 피하랴”는 자기 추궁의 근거(빌려 쓴 말)
>
>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 **에베소서 4:30**
> 인치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죄의 무게임을 보여 줌(빌려 쓴 말)
>
>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 5. 구체적인 은혜들로 죄책을 비추라: 인내, 회복, 섭리

이제 일반적인 복음의 은택(대속, 칭의 등)에서 내려와, 주님이 그 은택으로 바로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구체적으로 보라고 한다. 첫째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다. 나는 입술로 그럴듯하게 약속하고 다 깨 버렸다. “이제 하나님의 인내도 바닥났고 나는 버림받았다”고 스스로 결론 내린 적도 많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시 사랑의 초대장을 들고 찾아오셨다. 그런데도 또 하나님을 도발하겠는가? 둘째는 회복의 은혜다. 기도와 묵상의 기쁨이 사라지고, 방탕하고 부주의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커져 거의 빠져나올 수 없는 지경까지 갔을 때, 하나님은 교제를 회복시켜 주셨다. 그런데 또다시 완고함으로 달려가겠는가? 셋째는 섭리의 은혜다. 곤경에서 건지심, 환난에서 구하심, 누리게 하신 좋은 것들이 모두 여기에 든다. 오웬은 양심이 재를 뒤집어쓰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까지 이 일을 멈추지 말라고 한다.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다른 모든 노력이 소용없기 때문이다.

1. 일반적 은혜에서 '나에게 하신 일'로 내려가라
2. 깨진 약속에도 다시 찾아오신 인내를 보라
3. 식어 가던 나를 회복시킨 은혜를 기억하라
4. 섭리 속 건지심과 좋은 것들도 헤아려라
5. 양심이 엎드리기 전엔 다른 수단은 헛되다

📜 6. 네 번째 지침: 건짐 받기를 끊임없이 간절히 바라라

죄를 깊이 깨달았다면, 다음은 그 죄의 권세에서 건져지기를 끊임없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지금 내 영적 상태에 한순간도 만족해서는 안 된다. 세상일에서는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면 그것을 이룰 수단을 부지런히 쓰게 되고, 수단을 쓰지 않는 열망은 별 가치가 없다. 영적인 열망은 그보다 더 나아간다. 열망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영혼을 그 열망하는 것을 닮아 가게 만드는 힘이 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경건한 근심을 “간절한 소원”이라 부르며 큰 은혜로 보았다. 그리고 자신이 내재하는

성도 안에 있는 일반적인 죄 때문에도 이렇게 부르짖었다면, 어떤 특정한 정욕이 날뛰는 사람은 얼마나 더 간절해야 하겠는가. 간절함은 마음을 깨어 있게 하고, 원수를 칠 기회를 찾게 하며, 기도에 생명을 주고, 믿음과 소망을 움직인다. 오웬은 다윗처럼 탄식하며 부르짖으라고 한다.

1. 지금 상태에 만족하지 마라
2. 영적인 열망은 그 자체가 은혜다
3. 열망은 영혼을 바라는 것으로 닮아 가게 한다
4. 간절함은 기도의 생명이다
5. 원하지 않으면 벗어나지 못한다

> **고린도후서 7:11**
> 경건한 근심이 낳는 '간절한 소원'이 은혜임을 보여 줌
>
>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 **로마서 7:24**
> 내재하는 죄에서 건져지기를 바라는 사도의 부르짖음
>
>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 **데살로니가전서 5:17**
> “항상 기도하라” — 간절함이 그 기도의 생명
>
> 쉬지 말고 기도하라

> **시편 38:9**
> 탄식하며 하나님을 찾는 다윗의 모범(시편 38편 전체)
>
>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 **시편 42:1**
>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의 모범(시편 42편 전체)
>
>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벗어나려고 간절하게 열망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 7. 다섯 번째 지침 (1)·(2): 타고난 기질에 뿌리내린 죄

어떤 죄는 내 본성적 기질, 곧 타고난 체질과 성격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내 체질 자체가 그 죄를 키우고 있을 수 있다. 오웬은 사람의 기질 속에 특정한 죄에 대한 소질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두 가지를 분명히 한다.

첫째, 기질에서 나온 죄라고 죄책이 면제되거나 줄어들지 않는다. 불경한 사람들은 흉악한 죄를 "내 성격이 원래 그래"라며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한다. 오웬은 신자가 같은 말로 죄책의 압박을 피하려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는다. 타락 이후 원죄 때문에 우리 본성 안에는 죄의 연료가 있다. 다윗은 자신이 죄 가운데 잉태되었다고 고백했지만, 그것을 핑계가 아니라 죄책을 더 무겁게 하는 사실로 여겼다. 특정한 죄에 유독 끌린다는 것은 원래 있던 부패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그러니 더 낮아져야 한다.

둘째, 이런 기질은 죄와 사탄에게 엄청난 유리함을 준다. 그래서 특별히 깨어 있지 않으면 죄가 영혼을 지배하게 될 것이 뻔하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지옥으로 직행했고, 덜 요란한 모습으로 지옥에 간 사람들도 있었다.

1. 기질 탓은 죄책을 줄이지 못한다
2. "원래 그래"는 불경한 자들의 변명이다
3. 다윗은 타고난 죄를 더 낮아질 이유로 보았다

5. 그래서 남보다 더 깨어 있어야 한다

> **시편 51:5**
> 타고난 죄성이 죄책을 덜지 않고 더한다는 다윗의 고백
>
>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여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 8. 다섯 번째 지침 (3): 몸을 쳐 복종시키라 — 그러나 로마 가톨릭식 고행과는 다르게

기질에 뿌리내린 죄를 죽이는 데 특히 맞는 방법이 있다. 바울이 말한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것이다. 오웬은 이것이 하나님이 죄 죽이기의 방법으로 정하신 것이라고 한다. 이 방법은 정욕이 자라는 토양을 걷어 내어 그 뿌리를 시들게 한다.

그런데 교황주의자들, 곧 로마 가톨릭 교회를 따르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의와 성령의 일과 죄 죽이기에 무지하다. 그래서 죄 죽이기의 중심을 사람이 만든 종교 의식, 고해성사, 보속을 위한 고행에 두었다. 이것은 그 자체로 잘못이다. 게다가 그 반동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겸비의 수단까지 소홀히 하게 만들 수 있다. 오웬은 금식이나 철야처럼 본성적 욕구를 끊는 방법은 두 가지 조건을 지키면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본다.

- 몸을 약하게 하는 행위를 그 자체로 선행이나 죄 죽이기로 여기지 말 것. 그렇게 여기면 다시 '육체의 규례' 아래 들어간다. 그것은 죄의 뿌리를 약화시키는 수단으로만 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몸과 마음만 상한다.
- 그 수단에 죄를 죽이는 힘이 있다고 여기지 말 것. 그렇다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성령 없이 죄를 죽일 수 있게 된다. 그것은 성령이 쓰실 수 있는 도구일 뿐이다. 성령이 그것을 쓰실 때 죄를 죽이는 능력이 나타난다.

교황주의자들은 이것을 몰라서, 신자보다 말이나 짐승에게나 어울릴 방법을 만들어 냈다. 결론은 이렇다.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에 참여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수단으로 기질 속 정욕의 뿌리를 쳐야 한다.

1. 몸을 쳐 복종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다

3. 고행 자체를 선행으로 보면 율법주의다
4. 금식·철야는 수단일 뿐, 힘은 성령께 있다
5.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이 수단을 쓴다

> **고린도전서 9:27**
> 기질에 뿌리내린 죄를 다루는 방법인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의 근거
>
>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 9. 여섯 번째 지침: 죄가 올라타는 계기와 길목을 살펴 막으라

정욕은 어떤 계기나 유리한 조건을 등에 업고 힘을 쓴다. 그러니 그런 상황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생기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신 의무의 일부다. 다윗도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다"고 했다. 자기가 넘어질 수 있는 길목을 막고 낌새를 차단했다는 뜻이다. 내 죄가 어떤 길로 오는지, 어떤 사람·상황과 어울려 다니는지, 어떤 기회와 생각과 조건을 타고 일어나는지 살펴서 다 막아야 한다. 사람들은 몸의 병에 대해서는 해로운 날씨나 음식이나 공기를 꼼꼼히 피한다. 하물며 영혼의 일이 덜 중요하겠는가.

오웬은 하사엘의 예를 든다. 엘리사가 그가 저지를 잔혹한 일을 미리 말하자 하사엘은 자기가 그런 자일 리 없다고 여겼다. 엘리사는 더 설득하지 않고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이라고만 말했다. 잔혹함으로 이끄는 자리에 겁 없이 들어서면 그는 잔혹한 자가 될 것이었다. 누구든 "너는 이런 죄를 지을 것"이라고 하면 펄쩍 뛴다. 그러나 그가 그 죄로 이끄는 계기들에 겁 없이 뛰어든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다면, 그 자신감이 근거 없다는 것이 드러난다. 시험과 유혹의 문제는 죄 죽이기만큼 중요하므로 오웬은 다른 글에서 따로 다루겠다고 한다.

1. 죄는 늘 어떤 계기를 타고 올라온다
2. 내 죄의 길·동반자·기회를 파악하라

4. 유혹에 겁 없으면 죄에도 겁 없어진다

5. “나는 절대 안 그래”는 근거 없는 자신감

마가복음 13:37

“깨어 있으라” — 모든 신자에게 주신 경계의 명령

>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34

“스스로 조심하라” —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길목을 지킬 것

>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시편 18:23

자기 죄악의 길목을 스스로 막은 다윗의 모범

>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열왕기하 8:13

계기에 뛰어드는 자는 스스로를 장담할 수 없다는 하사엘의 예

>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일을 행하오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악으로 유혹하는 것들에 겁 없이 뛰어드는 사람은 악에도 겁 없이 뛰어들게 될 것이다.”

📜 10. 일곱 번째 지침: 죄가 잉태되는 첫 움직임을 막으라

정욕이 처음 낌새를 보이는 순간 강하게 막아, 아주 작은 발판도 내주지 말라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괜찮아, 더는 안 돼”라고 해서는 안 된다. 한 걸음을 허락하면 두 번째 걸음도 딛는다. 죄에게 경계선을 그어 줄 수는 없다. 죄는 수로 속 물과 같아서 한번 흘러나오면 제 길을 가고, 막으면 넘치기보다 돌아갈 길을 찾는다. 야고보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자라 사망을 낳는다고 했다. 처음에 끊어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그러니 생각이 흐트러지기 시작할 때, 그 죄가 끝까지 갔을 때 느낄 분노와 똑같은 분노로 막아야 한다. 그 끝에 내 생각이 얼마나 더러워지고 내가 어떤 어리석음 속에 뒹굴게 될지, 결국 그 죄가 나를 죽이고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을 떠올리라. 처음에 단호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죄가 감정에 발판을 얻어 내가 그것을 즐기게 되면, 다음에는 지성에 발판을 얻어 죄를 가볍게 여기게 만든다.

1. “여기까지만”은 통하지 않는다
2. 죄에게 경계선을 그어 줄 수 없다
3. 욕심 → 죄 → 사망, 처음에 끊어라
4. 끝을 상상한 분노로 시작을 막아라
5. 감정이 즐기면 생각이 죄를 가볍게 본다

> **야고보서 1:14-15**
> 욕심이 잉태→죄→사망으로 자라니 첫 단계에서 막아야 함
>
> 14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5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에게 경계선을 정해주어서 그 이상은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오해와 반론** ⌄

죄 죽이기(mortification)
성령의 힘으로 내 안에 있는 죄의 힘과 뿌리를 꾸준히 약화시키고 끊어 내는 일.

내재하는 죄(indwelling sin)
구원받은 신자 안에도 아직 남아 있어 죄로 끌어당기는 성향.

정욕(lust)
특정한 죄를 향한 강한 욕망. 성적인 것만이 아니라 분노·탐욕·교만 등도 포함한다.

죄책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책임이 있어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사실.

양심
내 행동과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고발하는 내면의 목소리.

율법의 정죄하는 권세
율법이 죄를 고발하고 형벌을 선고하는 힘.

배교
신앙을 고백하던 사람이 진리와 믿음에서 떠나는 것.

본성적 기질
타고난 성격과 체질. 그 안에 특정 죄에 쉽게 끌리는 소질이 있을 수 있다.

보속·고행
로마 가톨릭에서 죄의 대가를 채우려고 몸을 괴롭히거나 의식을 행하는 것.

육체의 규례
겉으로 몸을 다스리는 규칙을 지키는 것 자체를 경건으로 여기는 율법주의적 태도.

- **점검 질문**

✅ 이 장의 결론

- 죄를 죽이려면 먼저 죄책을 피하지 말고 율법과 복음과 받은 은혜 앞에서 양심이 엎드리게 해야 한다.
- 그다음 그 죄의 권세에서 건져지기를 끊임없이 간절히 바라야 한다. 그 열망 자체가 은혜다.
- 타고난 기질에 뿌리내린 죄는 핑계 삼지 말고, 성령께 기대어 하나님이 주신 수단으로 뿌리를 쳐야 한다.
- 죄가 올라타는 계기와 길목을 미리 막고, 죄의 첫 움직임을 끝을 보듯 단호하게 끊어야 한다.

🎬 이 장을 쓰는 편

- 죄 죽이기 10편 · 그 죄와 실제로 싸우는 법 · 양심에 짐 지우기부터 첫 움직임 막기까지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오웬 『죄 죽이기』(CH북스, 박문재 옮김)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 전문 텍스트판과 서재 정리본은 pdf.quritan.com 에 있습니다.